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編輯人 李鍾容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특별기고」 한약관리규정
무엇을 담았나 3면
- 주산단지 순례
(구례 산수유) 4면
- 동방약성을 다녀와서 5면

상설매장이 인기

국산 한약재



◇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지 직거래로 시중보다 10% 가격 저렴
생산지 생산자 표시로 자체 품질 관리

민들 수 있는 국산한약재를 사기 위해 물려든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상설매장을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지난날 26일 본 협회가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개설한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심전대보향 재료를 사기 위해 일부러 인천에서 이곳까지 왔다는 김인숙 씨(40·인천 간성동)는 『그동안에는 한약재를 집에서 사거나 마트에서도 이것이 수입인지 국산인지 구별할 수 없어서 걱정했었는데 이처럼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이 생기니 정말 편리하고 좋다.』

특히 산지 회원 농가들과 직거래를 통해 약재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국산한약재에 비해 평균 10% 정도 저렴한 것도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사실.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은 기존의 협회 중앙방관장을 편의점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흥부대에서 근수를 팔아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6백㎡, 1층 단위의 깔끔한 소포장으로 업선된 규모를 갖추었다.

특히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검사 필증과 생산지 생산자 표시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

협회는 이같은 한약재 상설매장 운영 계획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국산한약재의 질을 저할 수 있는 한약재 직거래의 장점으로 활성화 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각 지역 재배회원들에게는 『양질의 생약재 공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본 매장을 시작으로 각 지방 지부와 서울시내 등에도 지점을 개설·채용할 방침이다.

우리생약 효과가 뛰어나

시호 엑기스 함량, 중국산의 2배

UR 협상 타결과 WTO 제정의 출범은 농수축산물의 수입자유화로 연결되고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취약한 우리 농수축산물이 그 생약재 산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생약재

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내 재배가 불가능하거나 생산이 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일부 재배 생약재까지도 수입이 거론되고 있다.

농수축산물과 연구진이 장특수성과 연구진이 지난해에 중국산 시호와 한국산 시호를 재료로 성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시호의 엑기스 함량이 13.47%에 불과한 반면 한국산은 21.61%로 60% 이상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중국산 재배지인 베트남과 대만 등지에서 생산된 시호의 엑기스 함량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주요성분인 Saponin(사포닌)은 인데 비해 중국산이 0.74%인 데 비해 한국산이 1.05%로 40% 이상 높았다. 또 86% 정도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중국산 재배지인 베트남과 대만 등지에서 생산된 시호의 엑기스 함량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의 엑기스 함량이 27.7%인데 비해 한국산은 29.6%·37.4%로 높게 평가되었고 주산단지인 Baicaline(바이칼린) 함량도 중국산 1.13%에 비해 전북 무주산의 경우 1.37%로 높게 평가되었다.

농수축산물시호협약 용자를 개발연구실장성 나솔바사는 『기원이 같은 생약이라도 재배지의 토질, 기후, 관리를 달리하면 품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배지 규격이나 내용 성분에 있어서도 품질의 생약재를 생산하는

길이 개발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그기 위해서 는 국내의 주요 재배 품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입산과의 비교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품의 경우 농약에 대한 잔류성 문제를 꼭 평가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재배농가를 보호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농수축산물시호협약 연구실을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품질만은 뒤질 수 없습니다”

값싼 수입약재에 밀려 우리 한약재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시장점유율, 저렴한 가격, 어느것도 경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품질만은 자신 있습니다. 양질의 청정 생약재 생산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회원일동